

민주 “가짜뉴스 퇴치 하자는데 국힘이 ‘카톡 검열’ 프레임”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 유포시 고발 조치 방침 국힘 “검열 독재” 억지...민주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 강력 대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의 ‘카톡 검열’ 논란 제기’에 항의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하려 한다”는 주장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뺨뺨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가짜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의원들은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가리는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저도 어린 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사랑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며, 죽어 마땅한 사람들과 비교 비난하고 다녔다. 이유는 단순하다.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짜뉴스 퇴치’가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원회의 ‘카톡 검열’은 사실을 왜곡한 정치공세라고 입을 모았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마치 카톡 검열이라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슨 수로 카톡을 검열하겠나. 이런 것이 바로 거짓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신고되면 이와 관련해 검토하고 필요시 적극 고발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회의원은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저에게 문자폭탄 메시지 1600개가 왔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공산당 조작 등의 내용”이라며 “저도 이런 것들은 고발 조치를 해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 측과 국회의원들이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보수 유투버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도 북한의 공격 유도를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지 ‘외환죄’라는 명칭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감정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가짜뉴스 유포 행위로 민주당이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방어진 보장 인권위, 내란 수괴 비호” 민주당 박성준, 고민정, 서미화, 전용기, 정진욱 의원, 개혁신당 천하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의 의원 등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최상목,尹영장집행 저항 막는 일 가장 중요”

“법질서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안돼” 최 대행 수수방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최 권한대행을 접견하고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잘 챙기

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지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

다’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정협의회체 출범하면 추경 규모 논의”

국힘 권영세, 최상목 대행 접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방침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 670조원 예산 중에서 1분기에서 통상적으로 170조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 실행하게 될 경우 한 270조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100조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작년에 왜 일방적으로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경은 말 그대로 추후 부족 한 부분에 맞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국정협의회체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략력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춘생 의원 ‘백골단’ 김민전 징계안 발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3일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초당적으로 그를 제명해야 한다”며 “독재 정권, 국가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의 만행은 지금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그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조직을 국회에 대등하고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 게 제출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추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헌정질서 파괴범, 승낙 없이 압수·수색 가능

주철현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헌정법의 불명확한 기준을 약화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수사나 범죄자의 신병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